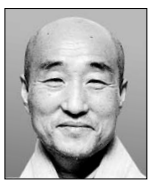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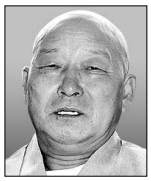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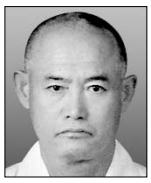
두산장학회 장학금 수여
재단법인 두산장학회 이사장 일면 스님은 10월 22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학생 14명에게 총 1400만원의 2006학년도 하반기 장학금을 수여했다.



대구종 경복종무원원 개원
대구종 경복종무원원 개원 스님은 경산시 와촌면 동강2리에 30여 평 규모의 경복종무원원을 마련하고 10월 26일 개원식을 봉행했다.



교정수기 공모전서 우수상
육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대전지방교정청이 주최하고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가 후원하는 제2회 교정수기 및 문예작품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법화종 대구경북 종무원장 취임
영천 용화사 주지 혜각 스님은 11월 3일 오전 10시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연홀에서 법화종 대구경북종무원 12대 종무원장에 취임한다. (053)766-7231



국제신론 발행인 겸 사장에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은 10월 26일 열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국제신론 발행인 겸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노화와 웰빙' 주제 심포지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석현 원장은 11월 3일 일산불교병원 강당에서 '노화와 웰빙'을 주제로 국제학술타포지엄을 개최한다. (031)961-7081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받아
주간불교신문사 김성근 주필은 10월 24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6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제5회 차 그릇 전시회
도예가 양계승씨가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관훈동 경인미술관에서 제5회 차 그릇 전시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다.



온불련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한국운전기사불자회 대구지역회 신상용 회장은 10월 23일 대구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제3회 온불련 한마음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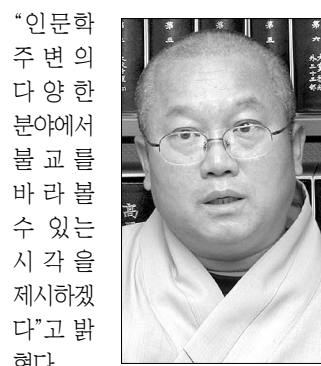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하는 산사의 밤
대불련 대구경북동분회 임해수 회장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청도 적전사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산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선학원史 체계적 재정립 계기”

‘한국근현대불교사...’ 학술회의 여는 법진 스님

그동안 불교학계가 진행해 온 ‘한국근현대불교사’ 연구의 양적 질적 성과를 점검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지리가 마련된다. 선학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은 11월 2일 오후 2시 서울 타워호텔에서 ‘한국근현대불교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장 법진 스님(사진)은 “한국근현대불교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 성과가 극히 미진한 분야였지만, 90년대 들어 몇몇 연구자와 단체들에 의해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발표가 근현대 불교사 연구의 현실을 점검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법진 스님은 “최혜경(성신여대) 김경집(동국대) 이택진(창원전문대) 등 젊은 소장학자들의 비판의식을 담으며 노력했다”며



“인문학 주변 의 다 양 한 분야에서 불 교 를 바 라 볼 수 있는 시 각 을 제시하 겠다”고 밝 혔다. 또 “정화는 과거의 개념이 아니라 갈수록 속화되어가는 승단의 청정성과 대중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절실한 화두”라며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선학원사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은 지난해 6월 선학원의 정체성을 밝히고, 불교학 인재양성,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발표했다. (02)734-9653 조용수 기자

불교아동문학상 순수자, 신인상 김명희씨

한국불교 청소년문화 진흥회(이사장 박용일)가 주관하고 한국 불교아동문학회(회장 김진식)가 주최하는 제23회 한국 불교아동문학상에 순수자씨, 신인상 김명희씨가 각각 선정됐다.



순수자씨



김명희씨

순수자씨는 “아기 부처와 파랑새”의 4편으로 선정됐다.

김명희씨는 “선재와 큰스님의 그림자 발기”로 상을 받는다. ‘불교아동문학상 신인상’은 최근 5년간 불교아동문학 활동을 열심히 한 전공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시상식은 11월 3일 저녁 6시 30분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다. 김지연 기자

평생 인간방생 실천, 지순 스님 입적

평생 ‘인간방생’을 실천해 온 서울 보문동 미타사 지순 스님(사진)이 10월 22일 오후 입적했다. 세수 94세, 법랍 67세. 영결식은 24일 미타사에서 엄수했다.



지순 스님

1913년 수원에서 태어난 지순 스님은 고모와 함께 요양차 미타사를 찾아 처음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스님은 고모가 숨을 거두자 생사에 대한 의식을 품고 출가를 결심했다. 1939년 유명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득도한 지순 스님은, 일

제강점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모를 잃거나 버림받은 아이들 100여 명을 보살피는 등 인간방생을 실천해왔다. 지순 스님은 90이 넘는 노구에도 조석예불과 포행을 빠트리지 않는 등 수행에 힘써 후학들의 귀감이 됐다. 남동우 기자

“혁신 프로그램으로 발전 기반 조성”

대불청 24대 회장 박효상씨



“불청운동에 대한 작은 성과를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를 모아 힘찬 불교운동과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10월 22일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제51차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박효상(법수·41·사진) 전 연수원장이 제24대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효상 회장은 155표 중 82표, 정재호 후보는 72표를 얻었고, 한 표는 무효표로 처리됐다.

공공성 강화, 신명력 증진, 지구·지구·지회 활성화, 중앙조직 혁신 등 4가지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워 ‘불청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박효상 신임회장은 “지회가 참여하는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직능 중심의 부회장단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각종 전문 자문위원회를 영입해 대불청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위촉이사들의 위원회 활동을 강화시키는 등 동등적 중앙조직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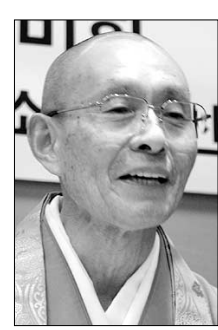
또 대불청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중 받아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따서 지구·지구·지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희망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현재 (주)메카니이에 근무하는 박 회장은 “불청 뿌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근현대 불교청년운동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불청신행의 모형을 만들고 성장적 불청외교의 모색을 통해 신명증진을 위한 정체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배지선 기자

“禪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日 입제종 미야모토 방장 부산서 ‘實參·實悟’ 강조 법문

일본 입제종 대본산 항악사 방장 미야모토 스님(사진)이 한국 불자들을 만났다. 20대 초반에 출가, 50여 년 동안 두문불출하며 수행에만 몰두하던 스님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오곡도 명상수련원 장휘욱 원장과 김사업 지도법사와의 인연. 통영 오곡도도 명상센터로 짓고 수행에만 전념하기 위해 교수직을 놓고 섬으로 들어갔던 두 사람이 세계의 선방을 체험하면서 미야모토 방장과 인연을 맺은 후 각별한 사제의 연을 맺어왔다.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백은 선사사의 <야선한화>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 그 책에 나와 있는 좌선법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선을 수행하는 곳을 찾아 그곳에서 출가했다. “수행과정 동안 그 어떤 고통보다 ‘깨닫지 못한 고통’이 가장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백한 스님은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모든 고통의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백은 선사사의 ‘좌선화(坐禪和讃)’의 계승을 인용하며 법문을 마무리했다. “백은 선사사의 계승을 즐기고 즐기며 핵심만 뽑는다면 ‘중생은 본래 부처이니 스스로 마음 돌려 자성을 깨달으면 이 몸이 곧 부처이니라’가 된다”며 “실법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으로 본래면목을 회복할 수는 없다. 실참과 실구의 꾸준한 노력을 거쳐 실참을 꾸준히 몰려서 잊고 해 나가는 실구(實究), 그리고 실구를 통해 실오(實悟)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보덕사,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봉정식



서울 보덕사(주지 삼중)는 10월 20일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봉정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보덕사 주지 삼중 스님을 비롯해 일본 고야산 진언종 하야시 가쿠조 스님 등 1백여 명이 동참했다. 삼중 스님은 “후쿠오카 남장 사법당에 모셔진 진신사리를 한국 사찰로는 처음으로 이운 봉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3회 불교계 큰일꾼 한마당 개최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여태동)는 10월 21일 김포 중앙승가대 운동장에서 ‘제3회 불교계 큰일꾼 한마당’을 개최했다. 불기협 소속 11개 회원사 100여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축구, 발야구, 줄다리기, 1000m 이어달리기 등의 운동경기와 친목도모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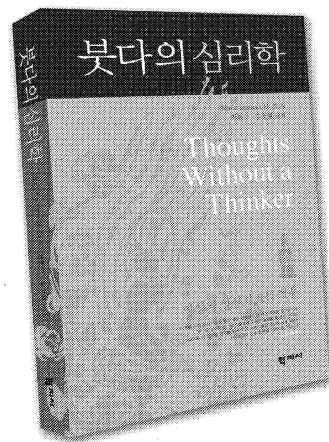
山寺樹木葬(모집)

이제 수목장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 55호 참고)

귀 사찰에서 보유하고 계신 임야에 수목장 시설을 갖추고 영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한국 수목장 연합회”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급증하는 화장식 장묘문화에 따른 수목장시설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시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임야를 소유한 사찰이나 문중, 개인께서 수목장 사업을 원하시면 지금 즉시 연락 주십시오.
서울, 경기지역 및 전국 각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3~5개의 수목장을 회원으로 모집하며 본 연합회는 각 회원사 수목장을 홍보, 영입하여 매일 유족을 보내드립니다.
1호점인 “광릉수목장”(www.goodsumok.com 참조)은 2006. 9월초 본 회가 설립하여 10월 중순까지 총100여기를 안치시켰습니다.

산단 한국불교장의총연합회
부설 한국수목장연합회
T.02)2215-7908 / F.02)2216-1721



세계적인 프로젝트, 불교와 정신치료의 통합

붓다의 심리학

Mark Epstein M. D. 저 | 전한수·김성철 외 공역 | 신국판 | 304면

붓다의 가르침과 서양 심리학 통찰의 조화로운 만남

불교를 통해 정신치료가 상담의 한계를 보완해 줄 가능성을 살펴보고, 모든 정신은 명상적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서양 정신치료와 불교 명상 양쪽에서 20년간 경험한 결과입니다. <붓다의 심리학>은 치료자들에게 유용한 통찰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진전된 연구를 하게 하고, 치료자와 명상적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상호 협력을 자극시킬 것입니다.

- 달라이 라마 추천사 -



완전한 자기 구원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법

미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상, 하

존 카밧친 저·정현갑 외 공역 384/352면 | 신국판 | 반양장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 자기 극복을 하기 위한 길잡이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

조안 브리켈로 외 공역·정현갑 외 공역 272면 | 신국판 | 반양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요가 수련을 소개하는 실습지침서

요가 첫걸음

산드라 엔드라 외 공역·조유경 외 공역 262면 | 국배형판 | 반양장

“학자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hakjisa TEL (02)326-1500 | FAX (02)324-2345 http://www.hakjisa.co.kr